



미 증시, 11월 CPI 하락 등에 힘입어 상승

미국 증시 리뷰

12 일(화) 미국 증시는 예상치와 부합한 미국 11월 CPI 결과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확인하고, 미 30년물 국채 경매 결과 예상 대비 견조한 장기물 국채의 수요를 확인하며 상승 마감(다우 +0.48%, S&P500 +0.46%, 나스닥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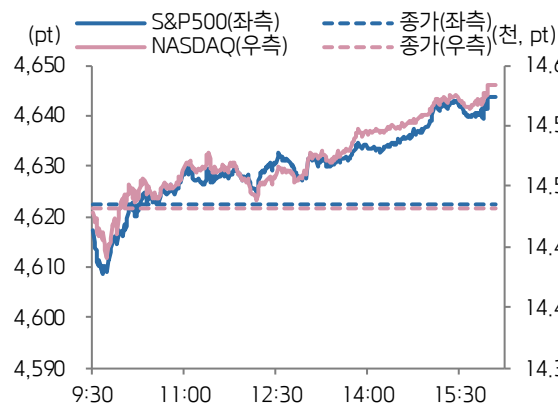
미국의 11월 CPI는 전년대비 3.1% 상승하며 컨센서스(3.1%)와 부합하였고 전월치(3.2%) 대비 소폭 둔화, 전월비 기준으로는 0.1% 상승. 근원 CPI는 전년 대비 4.0% 상승하며 마찬가지로 컨센서스(4.0%)와 전월치(4.0%)에 부합한 수치, 전월대비로는 0.3% 상승.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주거비가 전월대비 0.4% 상승하며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3% 하락. 그 중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6% 하락함에 따라 서비스 품목의 물가상승률을 상쇄.

미 재무부의 약 21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국채 입찰 결과 30년물 채권 발행 금리는 4.344%로 결정. 입찰 당시 평균 금리인 4.34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예상보다 미국채 장기물의 견조한 수요를 확인, 응찰률은 2.43배를 기록하며 이는 지난 6개월 평균 2.41배보다 높은 수준. 이로 인해, 미 CPI 발표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차 4.2%대로 안정세 유지.

한편, 인터뷰에서 열린 미 재무부 장관은 '현재 미국의 경기침체가 반드시 나타날만한 근거는 없다'라고 언급. 특히, 인플레이션이 현재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미 경제는 연착륙을 향해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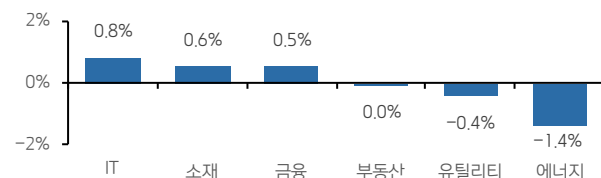
업종별로 IT(+0.83%), 소재(+0.57%), 금융(+0.54%) 강세, 에너지(-1.35%), 유틸리티(-0.41%), 부동산(-0.05%) 약세. 주요 종목 중 애플(+0.79%), 알파벳(+1.09%), 메타(+2.75%), 엔비디아(+2.21%) 등은 상승한 반면, 알파벳(-0.58%), 테슬라(-1.14%) 등의 종목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빅테크 기업별로 차별화된 양상. 그 외에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WTI가 70선을 하회하며 에너지 섹터(-1.35%)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엑손모빌(-1.6%)은 52주 신저가 기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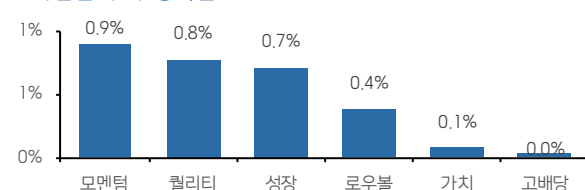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35.27	+0.39%	USD/KRW	1,314.00	-0.21%
코스피 200	339.77	+0.54%	달러 지수	103.80	-0.28%
코스닥	839.53	+0.51%	EUR/USD	1.08	+0.29%
코스닥 150	1,340.76	+0.64%	USD/CNH	7.19	-0.03%
S&P500	4,643.70	+0.46%	USD/JPY	145.49	-0.46%
NASDAQ	14,533.40	+0.7%	채권시장		
다우	36,577.94	+0.48%	국고채 3년	3.447	-2.3bp
VIX	12.07	-4.43%	국고채 10년	3.530	-3bp
러셀 2000	1,881.27	-0.13%	미국 국채 2년	4.731	+2.3bp
필라. 반도체	3,930.18	+0.71%	미국 국채 10년	4.206	-2.7bp
다우 운송	15,418.60	+0.13%	미국 국채 30년	4.313	-1.4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536.61	-0.08%	WTI	68.85	-3.46%
MSCI 전세계 지수	700.08	+0.25%	브렌트유	73.48	-3.35%
MSCI DM 지수	3,056.42	+0.3%	금	1995.2	+0.08%
MSCI EM 지수	973.23	-0.18%	은	22.73	-0.2%
MSCI 한국 ETF	63.05	+0.54%	구리	379.45	+0.3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0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9.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양호한 미 CPI 결과로 인한 국내 증시 상승 출발 가능성
2. 장중 12 월 FOMC 경계심리 유입세 심화 여부
3. 대주주 양도세 관련 불확실성이 개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금주 대형 이벤트 중 하나였던 미국의 11 월 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3.1%YoY, 컨센 3.1%), 코어(4.0%YoY, 컨센 4.0%) 모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재차 확인시켜준 모습. 엘런 재무 장관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은 잘 통제되고 있으며, 경기 소프트 랜딩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이날 미국 증시 강세를 이끈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전월비 기준으로 주거비(+0.5%MoM), 중고차(+1.6%MoM) 등 주요 품목들이 올랐다는 점이나, 슈퍼코어 물가가 10 월 3.7%(YoY)에서 11 월 3.9%(YoY)로 재차 반등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한번쯤 고민해볼 만한 요인. 이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장이 바라는 5~6 회 금리인하 기대감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

결국 전일 미국 증시가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번 CPI 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14 일(목) 예정된 12 월 FOMC 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우선 블룸버그의 자체적인 모델링 기법으로 FOMC 성명서 내 표현들을 매파/비둘기파 성향으로 나눠서 분석한 지수를 살펴보면, 연준의 성향은 경기 및 인플레 전망,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가변성을 띄고 있었음. 일례로 덜 매파적이었던 평가를 받았던 지난 7 월 FOMC 에서는 해당지수가 -6.5pt 를 기록했지만, 9 월 FOMC 에서는 -0.9pt 를 기록하면서 한동안 주가 급락, 금리 급등과 같은 시장 충격을 유발했던 경험이 존재(Fed Meeting Policy Sentiment Index, 0 보다 높으면 매파적, 0 보다 낮으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해당 데이터 분석에 포함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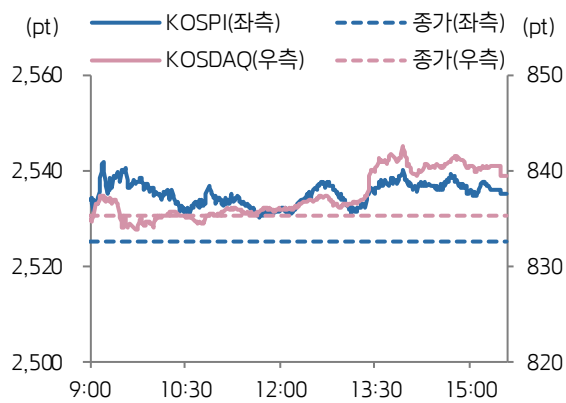
11 월 FOMC 에서는 -3.9pt 로 9 월에 비해 덜 매파적이었으며, 12 월에서도 매파 색채는 열어질 여지가 있어 보임. 11 월 FOMC 이후 12 월 현재까지 경기 모멘텀 둔화, 인플레이션 하락 등 여러측면에서 연준으로 하여금 현재의 고금리 정책 기조를 전환시킬 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 그렇지만, 12 월 이후 연준의 2024 년 금리인하 강도를 놓고 시장 참여자들 간에서도 수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서 봐야할 필요.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이들 역시 내년도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의지가 높아 보이긴 했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12 월 FOMC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겠으나, 시장의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억제하고자 점도표나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전환에 신중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 물론 최근 증시 상단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데서 추정해볼 수 있듯이, 12 월 FOMC 가 매파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일정부분 반영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기에, 관건은 시장이 예상하고 대비해왔던 것에 비해 이들이 어느정도 매파적일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미 11 월 CPI 경계심리가 상존했으나, 동시옵션만기일을 앞둔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 속 반도체 및 소부장, 반도체 등 주력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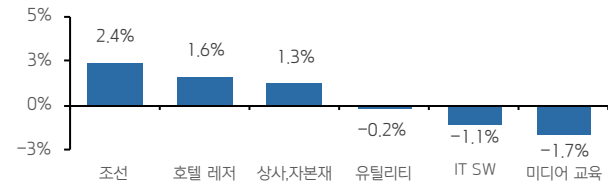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의 CPI 둔화 및 경기 소프트랜딩 기대감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FOMC 경계심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 또 전일 국내 장 마감 후 기재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도 금일 증시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 달리 말해, 이차전지, 로봇, 엔터 등 연중 개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이나 테마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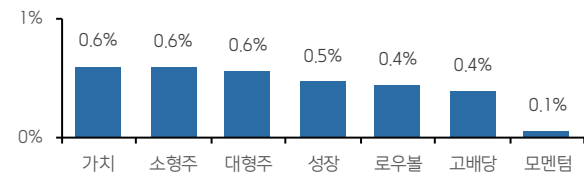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